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¹

오재근¹ · 김용진^{1*}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materia medica in *medicinal part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東醫寶鑑』「湯液編」)

Oh Chae-kun¹ · Kim Yong-jin^{1*}

¹Dept. of History of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

The medicinal part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東醫寶鑑』「湯液編」) is based on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證類本草』), *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鄉藥集成方』). But it distinguished materia medica of countryside(鄉藥) from materia medica of China(唐藥) and properly selected the sentences of them by actual medical circumstances in Korean peninsula. Especially upon assortment of medical herbs, the medicinal part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added the part of Water, Earth, Metal, and divided the part of Fish&Bug, Jade&Stone into Fish, Bug, Jade, Stone part. Moreover, it abolished the three grade classification adopted in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 and attempted a new approach on itemization; 'representative herb' and 'secondary herb'. Hence, medicinal part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should be evaluated as the 'settling in of Chinese medicine with autonomous interpretation, other than 'the fusion of prescriptions from countryside and Chinese medicine.

Key Words : medicinal part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東醫寶鑑』「湯液編」), materia medica of countryside(鄉藥), materia medica of China(唐藥)

I. 緒 論

『東醫寶鑑』「湯液篇」 3권은 조선 전기 향약의 자립을 일군 『鄉藥集成方』의 전통을 바탕으로 성립된 조선 후기 本草學의 대표 저작이며 독창적인 저술이다¹⁾.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042-280-2626 E-mail : king@dju.kr

접수일(2010년 8월23일), 수정일(2010년 9월17일),

게재확정일(2010년 9월18일)

三木榮은 『東醫寶鑑』「湯液篇」에 대해 주로 『證類本草』를 인용하고 『入門』 등을 배열하고 있으나 鄉方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취하고 鄉名이 있는 것과 唐藥이지만 상용하는 것은 위에 주를 달아 반도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였다고 하여 대륙의학과 반도의학이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

1) 이상인, 동의보감을 본초학 영역에서 살펴본 특징과 끼친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1992, 7(1), 1992, p.25, 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1982, 4(1), p.117.

하지만 『東醫寶鑑』「湯液篇」의 간행은 조선 초부터 이어져오던 鄉藥 전통의 계승이면서 동시에 조선 약재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중국의 본초학 전통과 달리 조선의 본초, 鄉藥과 관련된 독자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후 조선 내에서 『增訂東醫寶鑑湯液篇』(간행년도 미상)이 별도로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³⁾ 일본에서도 『東醫寶鑑湯液和名』, 『朝鮮藥名解』, 『東醫寶鑑湯液篇藥名韓稱』, 『東醫寶鑑湯液篇諺字和解』 등과 같은 『東醫寶鑑』「湯液篇」에 대한 해설서가⁴⁾ 등장한 점은 조선의 본초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음을 시사한다.

『東醫寶鑑』「湯液篇」과 관련하여서는 허준의 의학 사상과 『東醫寶鑑』「湯液編」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三木榮(1963)⁵⁾, 홍문화(1982)⁶⁾, 이상인(1992)⁷⁾, 신동원(2001)⁸⁾ 등의 선행 연구가 있다. 三木榮(1963)은 자신의 저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李朝の本草學’ 중에서 조선의 본초학사를 정리하며 『東醫寶鑑』「湯液篇」이 당대 본초학 서적의 기준으로 인식되었음을 밝혔고, 이상인(1992)은 『東醫寶鑑』「湯液篇」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本草 분류 체계 및 기술 상의 특징,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부 약물의 기원 문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東醫寶鑑』「湯液編」의 본초 분류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이덕봉(1982)⁹⁾, 서강태(1997)¹⁰⁾, 김호(2000)¹¹⁾, 이경우(2002)¹²⁾ 등의 연구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덕봉(1982)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동물, 식물, 광물의 기준으로 전체 本草 분류를 시도하는 선례를 남겼고, 김호(2001)는 『東醫寶鑑』 편찬의 사상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적인 자연관을 기반으로 本草의 분류를 설명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東醫寶鑑』「湯液篇」에 대한 본격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本草 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징 및 독창성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東醫寶鑑』「湯液篇」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고 있는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 그리고 동시대에 출간되었으며 本草 분류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本草綱目』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본초 분류의 측면에서 『東醫寶鑑』「湯液篇」이 지니고 있는 위상과 특징을 살펴본다¹³⁾.

II. 本論

『神農本草經』 이후 『本草經集註』, 『證類本草』, 『本草集要』, 『本草綱目』 등의 수많은 本草 관련 서적들이 지속적으로 本草 분류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여 왔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東醫寶鑑』「湯液篇」 역시 本草의 분류 방식이나 분류 항목의 배열, 분류 항목 내 개별 本草의 배열 순서 등의 측면에서 기존 서적들과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기존 本草 저작들이 취하고 있는 분류 방식은 크게 약물이 지닌 효능과 독성에 의한 분류 방법인 三品分類, 약물의 기원, 형태 등 자연 속성의 특징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방법인 자연 속성 분류, 약물의 효능에 의거한 효능 분류, 약물의 작용을 장부나 경락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장부경락분류,

- 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195, 356.
- 3)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736.
- 4)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341-342.
- 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6-357.
- 6) 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1982. 4(1). p.113-117.
- 7) 이상인. 동의보감을 본초학 영역에서 살펴본 특징과 끼친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1992. 7(1). 1992. pp.21-26.
- 8)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p.192-194.
- 9) 이덕봉. 한국문화사대계 5 한국생물학사.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pp.386-395.
- 10) 서강태.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本草의 분류.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11)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p.228-249.
- 12) 이경우.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本草에 관한 식물분류학적 고찰.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덕봉. 한국문화사대계 5 한국생물학사.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pp.386-395.
- 13) 山田慶兒(1999)는 ‘藥物’과 ‘本草’의 기원을 엄밀히 구별하여 ‘本草’를 약물의 명칭, 성질, 효능, 산지 등을 조사 연구하여 분류 기재하는 학문 또는 그 성과를 기재한 책으로 지칭하고 약물 지식이 ‘本草’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약물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원리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 원리에 의해 파악되고 정리된 지식은 경험적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山田慶兒. 中国医学の起源. 東京. 岩波書店. 1999. p.128.)라고 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本草’의 의미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약물, 약초, 약재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약물을 한자의 획순이나 한글의 가나다순으로 분류하는 사전식분류법 등을 꼽을 수 있다¹⁴⁾.

『東醫寶鑑』『湯液篇』의 경우 『證類本草』, 『鄉藥集成方』 등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성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本草 분류 항목의 배열 순서를 변경하고, 새로운 本草 분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三品分類를 외형상 폐지하는 등 기존 의서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비슷한 년도에 간행된 『本草綱目』(간행년도 약 1596년)이 전통적인 三品分類 방식을 탈피하고 전체 本草를 자연 속성 분류에 따라 16部 60類로 분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본초 또는 생물 분류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¹⁵⁾ 평가 받았던 것과 달리 『東醫寶鑑』『湯液篇』(간행년도 1613년) 중에서는 『本草綱目』과의 유사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¹⁶⁾ 기존 본초 분류 방식에서 일부만을 변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 분류 항목

1) 『東醫寶鑑』『湯液篇』 本草 분류 항목 배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醫寶鑑』『湯液篇』의 본초 분류 항목은 水部, 土部, 穀部의 순으로 시작되어 玉石部, 草部, 木部의 순으로 시작하는 『證類本草』, 『鄉藥集成方』의 본초 분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분류 항목에 있어서도 『東醫寶鑑』『湯液篇』에서는 水部, 土部, 金部의 분류 항목을 추가하고, 蟲魚部와 玉石部를 魚部和 蟲部, 玉部和 石部の 항목으로 다시 구분하여 보다 구체화된 본초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표 1 『證類本草』,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本草綱目』의 本草 분류

『證類本草』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本草綱目』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대분류	소분류	소분류
玉石部	上品 ⁷³ 中品 ⁸⁷ 下品 ⁹³	石部	上品 ¹⁶ 中品 ⁴² 下品 ⁵³	水部 ³³	水部	天水類 ¹³ 地水類 ³⁰	
草部	上品之上 ⁸⁷ 上品之下 ⁵³	草部	上品之上 ²⁹ 上品之下 ²³	土部 ¹⁸	火部 ¹¹		
	中品之上 ⁶² 中品之下 ⁷⁸		中品之上 ²⁷ 中品之下 ²³	穀部 ¹⁰⁶	土部 ⁶¹		
	下品之上 ⁶² 下品之下 ¹⁰⁵		下品之上 ²¹ 下品之下 ⁴⁵	人部 ²³	金石部	金類 ²⁸ 玉類 ¹⁴ 石類上 ³² 石類下 ⁴⁰ 鹵石類 ²⁰ 附錄 ²⁷	
木部	上品 ⁷² 中品 ⁹² 下品 ⁹⁹	木部	上品 ²⁸ 中品 ³⁴ 下品 ¹⁶	禽部 ¹⁰⁷	草部	山草類上 ³¹ 山草類下 ³⁹ 芳草類 ⁵⁶ 濕草類上 ⁵³ 濕草類下 ⁷³ 毒草 ⁴⁷ 蔓草 ⁷³ 附錄 ¹⁹ 水草類 ²³ 石草類 ¹⁹ 苔草類 ¹⁶ 雜草 ¹⁶ 有名未用 ¹⁵³	
				獸部 ²³⁶			
人部 ²⁵		人部 ²⁵		魚部 ⁵³	穀部	麻麥稻類 ¹² 稷粟類 ¹⁸ 菽豆類 ¹⁴ 造糧類 ¹⁴	
獸部	上品 ²⁰ 中品 ¹⁷ 下品 ²¹	獸部	上品 ¹² 中品 ⁵⁴ 下品 ²⁰	蟲部 ⁹⁵	菜部	葷菜類 ³² 柔滑類 ⁴¹ 蔬菜類 ¹¹ 水菜類 ⁶ 芝極類 ¹⁵	
				果部 ⁹¹	果部	五果類 ¹¹ 山果類 ³⁴ 夷果類 ³¹ 味類 ¹³ 鹹類 ⁹ 水果類 ⁶ 附錄 ²³	
禽部	上品 ¹⁵ 中品 ¹⁶ 下品 ⁴⁵	禽部	上品 ¹⁹ 中品 ⁷ 下品 ¹⁹	菜部 ¹²²	木部	香木類 ⁶⁵ 喬木類 ⁶² 灌木類 ⁶¹ 寓木類 ⁴² 苞木類 ⁴ 雜木類 ⁷ 附錄 ⁹	
蟲魚部	上品 ⁵⁰ 中品 ⁵⁶ 蟲部 下品 ⁸¹	蟲魚部	上品 ¹⁸ 中品 ²⁷ 下品 ³⁶	草部 ⁷⁹ 草部 ¹⁸⁸	服器部	服用類 ²⁵ 器物類 ⁵⁴	
				木部 ¹⁵⁶	蟲部	卵生類上 ²³ 卵生類下 ²² 化生類 ³¹ 濕生類 ²³ 附錄 ⁷	
果部	上品 ¹³ 中品 ¹² 下品 ²⁸	果部	上品 ¹⁰ 中品 ⁶ 下品 ¹¹	介部	鱗部	龍類 ⁹ 蛇類 ¹⁷ 魚類 ³¹ 無鱗魚類 ²⁸ 附錄 ⁹	
米穀部	上品 ⁷ 中品 ²² 下品 ¹⁸	米穀部	上品 ⁶ 中品 ²³ 下品 ⁷		介部	龜鱉類 ¹⁷ 蚌蛤類 ²⁹	
菜部	上品 ³⁰ 中品 ¹³ 下品 ²²	菜部	上品 ¹⁸ 中品 ¹⁰ 下品 ¹³	玉部 ⁴	禽部	水禽類 ²³ 原禽類 ²³ 林禽類 ¹⁷ 山禽類 ¹³ 附錄 ¹	
				石部 ⁵	獸部	畜類 ²⁸ 獸類 ³⁸ 鼠類 ¹² 萬類 ¹ 怪類 ¹⁸	
本草圖經本經外草類 ⁷⁵				金部 ³³	人部 ³⁷		

* 작은 숫자는 약물 가짓수 의미함. 『鄉藥集成方』의 本草 배열 순서는 『鄉藥本草論』에서 발췌 인용함. 『東醫寶鑑』『湯液篇』의 種수는 하위 항목까지 포함한 개수임. 예를 들어 人部 凡二十三種의 경우 ‘人尿’의 하위 항목인 ‘人中白’과 ‘秋石’까지 포함함.

14) 김호철,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4. pp.16-17.

15) 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50, 岡西爲人, 本草概説. 大阪. 創元社. 1983. p.217.

1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9.

本草 분류 항목 배열은 크게 『神農本草經』, 『證類本草』 등이 취하고 있는 玉石이 앞으로 나오는 방식과 『湯液本草』, 『本草集要』 등이 취하고 있는 草木이 앞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⁷⁾. 玉石이 本草 분류 항목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다수의 玉石藥을 上品藥으로 본 신선방사술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⁸⁾ 『證類本草』 등을 중심으로 『神農本草經』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후대 본초서들이 유사한 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王綸(1488-1505)은 『本草集要』 「凡例」에서 “책이름이 ‘本草’로 되어 있고 草보다 많은 약물은 없으므로 草部를 먼저 기재한다. 다음으로 木部를 배열하고 그 다음으로 菜部, 果部, 穀部를 놓았으니 이는 草木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다¹⁹⁾”라고 밝히며 草部를 강조하기 위해 草木을 앞으로 배치하였음을 제시하였다.

표 2 『東醫寶鑑』 관련 주요 本草 서적 별 本草 구분 항목 배열

서명(간행년도)	구분
『本草經集注』 (B.C.492-500)	玉石 草木 蟲獸 菜 果 米食
『證類本草』 (1108)	玉石部 草部 木部 人部 獸部 禽部 蟲魚部 果部 米穀部 菜部
『鄉藥集成方』 (1431)	玉石部 草部 木部 人部 獸部 禽部 蟲魚部 果部 米穀部 菜部
『湯液本草』 (1289)	草部 木部 果部 菜部 米穀部 玉石部 禽部 獸部 蟲部
『本草集要』 (1496)	草部 木部 菜部 果部 穀部 石部 獸部 禽部 蟲魚部 人部
『本草綱目』 (1596)	水部 火部 土部 草部 穀部 菜部 果部 木部 服器部 蟲部 鱗部 介部 禽部 獸部 人部
『東醫寶鑑』 「湯液篇」(1613)	水部 土部 穀部 人部 禽部 獸部 魚部 蟲部 果部 菜部 草部 木部 玉部 石部 金部

* 『本草經集注』는 간행년도가 아닌 저작기간(추정)을 기입하였음

『東醫寶鑑』 「湯液篇」은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許浚 자신의 의견이 가미된 독창적인 배열 순서를 채택하고 있다²⁰⁾. 水部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本草

綱目』과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本草綱目』은 『東醫寶鑑』 「湯液篇」과 달리 火部가 추가되어 水部 뒤에 이어지고 있고, 服器部가 추가되어 木部 뒤에 이어지고 있으며, 또 人部가 가장 뒤에 위치하고 있어 本草 분류 대한 관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²¹⁾. 『東醫寶鑑』 「湯液篇」은 水部, 土部, 穀部의 개별 약물 설명에 앞서 짧지만 분명하게 배열 순서와 관련된 언급을 기술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水部에서는 “天은 一로 水를 낳으므로 水로써 머리를 삼는다”²²⁾라고 하였고 맨 끝에 등장하는 金部에서는 金屬 鎔의 설명에서 “五行의 相生이 金에 이르러 지극해진다, 金은 제일 나중에 생겨 五行의 氣를 모두 갖추고 있다²³⁾”라고 하여 五行의 相生 순서에 의거하여 이 두 항목을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土部의 설명에서는 “土는 萬物의 어미이므로 土로써 그 다음을 삼는다”²⁴⁾라고 하여 본문 중에서 제시하고 있는 “天一

20) 이덕봉. 한국문화사대계 5 한국생물학사.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p.391.

21) 『本草綱目』은 법례에서 “水, 火는 만물 중에 가장 앞선 것이고 土는 만물의 어미가 되므로 이들을 앞에만 놓으며 金石은 土에서 유래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놓는다. 草穀菜果木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배열하였고 服器는 草木에서 유래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놓는다. 이어서 蟲鱗介禽獸을 배열하고 맨 뒤에 人을 배열하였는데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의 순서이다(首以水火, 次之以土, 水火爲萬物之先, 土爲萬物母也. 次之以金石, 從土也. 次之以草穀菜果木, 從微至巨也. 次之以服器, 從草木也. 次之以蟲鱗介禽獸, 終之以人, 從賤至貴也)”라고 하여 분류 항목의 배열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또 본문 중에서는 水를 만물 화생의 근원(水爲萬化之源)으로 생각하여 제일 처음에 위치시키고, 水火가 모두 사람을 기르며 삶이 여기에 의거해서 살아간다(水火所以養民而民賴以生者也)라고 여겨 火를 그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劉衡如 교정.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7, 387, 413). 『本草綱目』에서 人部를 가장 뒤에 위치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本草 배열이 무기물에서 유기물, 식물에서 동물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고등한 人을 맨 끝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인다(黃斌, 本草綱目藥物分類方法,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05. 4. p.35).

22)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303. “天一生水, 故以水爲首. ○凡三十三種.”

23)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592. “金者五行之極, 五行相生, 至金而極.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最後生備五行之氣, 造化之功用, 全矣.”

17)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193.

18) 神仙方士의 『神農本草經』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p. 46-53 참조.

19) 王綸. 歷代本草精華叢書 3 本草集要.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2. p.1. “今此先草部者, 書以本草名, 藥莫多於草也. 次木部, 次菜部果部穀部者, 草木之類也.”

生水... 地二生火²⁵⁾의 순서나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과 같은 相生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음도 밝히고 있다²⁶⁾. 이어지는 穀部의 설명은 보다 구체적이다. “天地 간에 사람의 性命을 기르는 것은 오직 穀 뿐이다. 土의 德을 갖추고 中和의 氣를 얻어 그 味가 담담하고 달며 性은 和平하다. 크게 補하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니(滲泄) 오래 먹을 수 있고 싫어함이 없다. 이것은 사람에게 그 공이 큰 것이다²⁷⁾”라고 하여 다음 항목인 人部를 염두에 두고 穀部를 배치하였음을 드러낸다. 특히 본문 중에서 『黃帝內經』의 문장을 인용하여 穀이 몸 안의 주인인 精, 氣, 神 중 精과 氣를 기른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穀部, 人部로 이어지는 배치에 설득력을 더해준다²⁸⁾.

분류 항목의 배열 순서와 관련하여 王綸은 『本草集要』「凡例」에서 “人部를 가장 끝에 놓은 것은 인간이 만물 중에서 가장 신령(靈)하기 때문이다²⁹⁾”라고 밝히며 같이 ‘草部, 木部, 菜部, 果部, 穀部, 石部, 獸部, 禽部, 蟲魚部, 人部’의 순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후 李時珍의 『本草綱目』 역시 人部를 가장 뒤에 두어 “從微到巨, 從賤至貴”의 배열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³⁰⁾, 『東醫寶鑑』「湯液篇」은 두 책과는 정반대로 사람의

주식인 穀部와 사람인 人部를 가장 앞에 두고 蟲部를 가장 뒤에 놓는 이른바 “從貴至賤”의 순서를 취하고 있다. 이는 人部를 가장 끝에 배치하였던 王綸의 설명처럼 사람이 가장 신령스럽기 때문이고, 또 사람이 가장 바르고 맑은 기운을 지니고 있어 귀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³¹⁾.

2) 『東醫寶鑑』「湯液篇」 本草 분류 항목 분석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 분류 항목은 五行相生의 순서에 따른 단순 배열이 아닌 복합적인 원칙들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있다³²⁾. 本草 분류 항목과 관련된 원칙 중 가장 먼저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天, 地, 人의 三才論적 관점으로 이는 하늘은 둥글면서 위에서 덮고 땅은 모나면서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만물이 존재한다는 우주론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黃帝內經』 이래 지속되어온 세계관이면서 동시에 『東醫寶鑑』 편찬 당시 조선 전반에 퍼져 있던 朱子(1130-1200)의 성리학적 자연 세계 분류 기준으로 표 3의 분류 항목 중 ‘天一生水’의 水部를 天으로, ‘萬物之母’인 土部는 地로, 人部, 禽部 등의 나머지 항목 전부를 人(인간과 만물)으로 볼 때 『東醫寶鑑』「湯液篇」을 중심으로 한 許浚의 자연관은 하늘과 땅의 氣가 합쳐져 만물을 이루어낸다는 三才論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 24)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312. “土爲萬物之母, 故以土次之. 凡十八種.”
- 25)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366. “無名子曰, 天一生水, 在人曰精, 地二生火, 在人曰神.”
- 26)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592.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517. “五行者, 金木水火土也. 相生者,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也. 相剋者,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木剋土, 土剋水也.”
- 27)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315. “天地間養人性命者, 惟穀耳. 備土之德, 得氣中和, 故其味淡甘而性和平, 大補而滲泄, 乃可久食而無厭, 是大有功於人者也. 綱目. 凡一百七種.”
- 28)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86, 320, 335. “故一身之中, 以精氣神爲主, 神生於氣, 氣生於精, “精生於穀”, “氣生於穀”.
- 29) 王綸. 歷代本草精華叢書 3 本草集要.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2. p.2. “終以人部焉, 人爲萬物之靈也.”
- 30) 劉衡如 교정. 李時珍 저.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7.

- 31)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78, “天地之內, 以人爲貴.”
- 32) 신동원(2001)은 허준의 『東醫寶鑑』「湯液篇」에서 本草 분류를 위해 활용한 기준으로 ‘생명의 유/무, 지각의 고/저, 하늘/땅/물의 서식 지역, 인간 생활에 유용한 정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194).
- 33)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79, “天地之精氣, 化萬物之形”, “天地之德, 合於氣而後生也.”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236. 『東醫寶鑑』 본문 중에서는 邵康節의 “神統於心, 氣統於腎, 形統於首, 形氣交而神, 主乎其中, 三才之道也.”라는 말을 인용하여 三元論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精氣神의 항목 분류로 대변된다. 정기신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김미림. 동의보감의 양생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 17-26 참조.

표 3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분류 항목의 구분

분류	三才	五行	생물, 무생물 분류	食不食 및 貴賤
水部	天	水	만물 생성의 바탕	
土部	地			
穀部		土 ³⁴⁾	인간(穀은 인간의 주식)	常食
人部				- 貴
禽部				
獸部				
魚部		火	동물	不常食 ↓
蟲部			생물	賤
果部	人			常食
菜部		木	식물	
草部				
木部				不常食
玉部				
石部		金	무생물	
金部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성 분류의 세부 기준이다³⁵⁾. 표 3의 天, 地, 人 분류 중 人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생명 유무에 따라 ‘穀部, 人部, 禽部, 獸部, 魚部, 蟲部, 果部, 菜部, 草部, 木部’의 생물과 ‘玉部, 石部, 金部’의 무생물로 구분되어진다. 그 중 생물은 인간과 동물, 식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과 동물, 식물은 ‘지각’의 존재 여부에 의거하여 구분되고³⁶⁾, 다시 인간과 동물은 품부 받은 기운의 바르고 치우침 또는 맑고 탁함에 따라 나뉘어 진다³⁷⁾. 그리고 人部를 제외한 동물은 날짐승(禽部)과 길짐승(獸部), 물짐승(魚部)과 곤충을 포함한 포유류 이하의 광범위한 하등 동물(蟲部)로 구분되고³⁸⁾, 식물은 곡식(穀部), 과일(果部), 채소(菜部), 풀(草部), 나무(木部)로 구분되는데, 이는 음양의 관점에서 이동성을 갖지 못한 나무와 풀(陰), 이동성을 갖는 새와 짐승(陽)으로 나뉘고 다시 단단하기 정도에 따라 부드러운 풀(陰)과 단단한 나무(陽),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기어다니는 길짐승(陰), 날아다니는 날짐승(陽)으로 구분된다³⁹⁾. 물짐승은 길짐승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 수 없으나 육지에 사는지, 물에 사는지 여부에 따라 陰이 보다 많은 물짐승과 陽이 보다 많은 길짐승으로 나뉠 수 있지만⁴⁰⁾ 벌, 굴조개, 남생이, 게, 누에, 뱀, 거머리, 천산갑, 올챙이, 이 등의 곤충과 조그마한 벌레 뿐 아니라 연체동물, 파충류, 양서류, 갑각류, 각종 패류 등이

34) 人部의 本草는 사람의 머릿털이나 손톱, 이빨 등의 구성 요소와 月水, 소변, 대변 등의 배출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五行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木火金水 중 어느 한 행에 편향되게 배속시키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土에 배속한다. 『素問』 「五常政大論」에서는 蟲을 毛羽 倮介鱗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홍원식 편,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57) 사람은 倮蟲으로 土에 속한다.

35) 이하에서는 『朱子語類』에서 제시된 자연 속성 분류 및 설명 방식을 인용하여 개별 분류 항목을 설명한다. 『東醫寶鑑』 「湯液篇」의 자연 속성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朱子語類』를 활용하는 이유는 비록 『東醫寶鑑』 문장 중에서 朱子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東醫寶鑑』이 편찬 간행되었던 17세기 전후가 여말 선조 중국에서 수입된 성리학이 16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등에 의해 이론적 정립을 거친 이후 정제된 모습으로 조선 사회를 주도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은 때이며(성호준, 동의보감의 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 동양고전연구, 2001. 15. p.182), 『東醫寶鑑』은 이론 내적으로 뿐 아니라 이론 외적으로도 상당 부분 당대 성리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조남호(2006)는 이에 대해 『東醫寶鑑』에 대한 이론 내외적인 분석을 통해 『東醫寶鑑』이 유가의 관점에서 도교와 한의학을 아우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성리학적 이념의 산물임을 밝히고 있다(조남호, 동의보감의 이론적 구조와 그 성격, 동방학지, 2006. 134. p.341, 359) 자연

세계 분류 및 조선 전기의 성리학적 자연관에 대해서는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p.237-246 참조.

36) 이주행, 조원식, 정갑임, 김우형, 박현주 옮김. 黎靖德 편. 朱子語類, 서울: 소나무, 2001. p.198. “問, 動物有知, 植物無知, 何也? 曰, 動物有血氣, 故能知, 植物雖不可言知, 然一般生意亦可默見.”

37) 이주행, 조원식, 정갑임, 김우형, 박현주 옮김. 黎靖德 편. 朱子語類, 서울: 소나무, 2001. p.223. “氣質之清者正者, 得之則全, 人是也. 氣質之濁者偏者, 得之則昧, 禽獸是也. 氣有清濁, 人則得其清者, 禽獸則得其濁者. 人大體本清, 故異於禽獸, 亦有濁者, 則去禽獸不遠矣.”

38)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 들녘, 1999. p.863.

39) 이주행, 조원식, 정갑임, 김우형, 박현주 옮김. 黎靖德 편. 朱子語類, 서울: 소나무, 2001. pp. 197-198. “草木都是得陰氣, 走飛都是得陽氣. 各分之, 草是得陰氣, 木是得陽氣, 故草柔而木堅, 走獸是得陰氣, 飛鳥是得陽氣, 故獸伏草而鳥棲木.”

40) 이주행, 조원식, 정갑임, 김우형, 박현주 옮김. 黎靖德 편. 朱子語類, 서울: 소나무, 2001. p.197. “季通云, 在陸者不可以入水, 在水者不可以居陸. 在陸者陽多而陰少, 在水者陰多而陽少. 若出水入陸, 則龜鱉之類是也.”

포함되어 있는 蟲部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없어 아마도 당대 지식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생물들을 모두 묶어놓은 분류로 추측된다⁴¹⁾.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복용 방식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식물 중의 穀部, 果部, 菜部는 ‘常食’으로 그 외 나머지 草部, 木部 등은 ‘不常食’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⁴²⁾. 이는 食療法이나 養生方, 饑饉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섭취 분류(食分)」에 속하는 것으로 『東醫寶鑑』이 채택하고 있는 본초에 대한 관점이 ‘시각 분류(見分)」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⁴³⁾. 특히 穀部, 果部, 菜部, 草部, 木部の 식물 분류 항목 중에서 ‘常食’ 가능한 항목인 穀部, 果部, 菜部를 앞에 배치하고 ‘常食’이 불가능하며 ‘藥’으로 활용되어야 할 草部, 木部를 뒤쪽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효능 분류(效分)와 섭취 분류(食分)의 구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며 또한 ‘調攝’을 ‘治療’보다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⁴⁴⁾.

2. 『東醫寶鑑』「湯液篇」의 본초 분류

(1) 三品分類

『東醫寶鑑』「湯液篇」에서 두드러지는 本草 분류 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三品分類의 형식상 폐기이다. 三品分類는 각각의 本草를 독성 유무와 養命, 養性, 治病의 효능 기준 등에 따라 上中下品으로 구분하는 분류 방식으로 『神農本草經』 이래 『本草經集注』, 『新修

本草』, 『證類本草』 등에서 지속되어 왔다⁴⁵⁾. 本草 서적 중 가장 먼저 三品分類를 포기한 것은 王綸의 『本草集要』(1496)로 자연 속성 분류를 진행한 후 세부적인 본초 분류는 진행하지 않은 채 본초 관련 기술을 진행하고 있다⁴⁶⁾. 『東醫寶鑑』「湯液篇」 역시 자연 속성 분류 외에 별다른 분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개별 本草에 대한 三品 관련 언급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 외형상 三品分類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⁷⁾. 하지만 『東醫寶鑑』「湯液篇」「湯液序例」중에서 ‘三品藥性’의 조목을 찾아볼 수 있고, 本草의 배열이 『證類本草』, 『鄉藥集成方』 등과 동일하게 三品分類에 의거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내용적으로는 三品分類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에서는 『東醫寶鑑』「湯液篇」과 『鄉藥集成方』, 『證類本草』의 草部를 중심으로 개별 本草 배열과 배열 위치 변경 등을 통해 『東醫寶鑑』「湯液篇」의 三品分類 채택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東醫寶鑑』「湯液篇」중의 개별 本草 배열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형상 三品分類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자연 속성 분류와 三品分類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의 체계를 차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4에서와 같이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 草部 上品之上은 ‘黃精, 菖蒲, 菊花, 人參, 天門冬’ 등을 제일 앞에 배열하고 있고 『東醫寶鑑』「湯液篇」 草部 역시 이와 동일하게 本草를 나열하고 있다. 『鄉藥集成方』 草部 上品之上의 끝부분에 ‘卷栢, 藍藤根’, 上品之下의 앞부분에 ‘藍實, 芎藭, 藤蕪

41)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 들녘. 1999. p.847. “『동의보감』에는 蟲이 들어간 門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內景」편의 蟲이며 좁은 의미로 몸 안에 있는 벌레를 뜻한다. 주로 기생충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이곳 「湯液」편의 蟲部이며 넓은 의미로 새와 짐승이 아닌 모든 동물이 蟲으로 분류된다.”

42) 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73.

43) 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40. 山田慶兒는 本草에 대한 인식의 원리가 효능 분류(效分), 섭취 분류(食分), 시각 분류(見分)로 발전하여갔고, 이에 따라 本草學 역시 약물학에서 박물학으로 발전하여갔다고 주장한다(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30).

44) 노정은. 東醫寶鑑 湯液篇에 수록된 식물류 本草의 문헌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58.

45) 本草의 三品分類와 관련하여서는 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p. 67-72 참조.

『神農本草經』은 一級分類로 三品分類를 하고 二級分類로 自然分類를 실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陶弘景의 『本草經集注』에서 一級分類로 自然分類를 하고 二級分類로 三品分類를 실시한 이후에 주류 本草들이 그 전통을 이었고 李時珍의 『本草綱目』에 이르러서야 三品分類가 二級分類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p.154-155).

46) 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71.

47) 『東醫寶鑑』「歷代醫方」중에 王綸의 『本草集要』가 등장하지만 『東醫寶鑑』「湯液篇」의 인용서목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별 本草에 대한 내용보다는 ‘三品分類 형식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本草集要』가 인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4 『證類本草』, 『鄉藥集成方』의 草部 上品과 『東醫寶鑑』「湯液篇」卷二 草部の 本草 배열

구분	草部	본초명
『證類本草』	上品之上	黃精 菖蒲 菊花 人參 天門冬 甘草 乾地黄 朮 (중략) 薯蕷 赤芝 黑芝 青芝 白芝 黃芝 紫芝 卷栢 辟瘟雷藥王 兜木香 草犀根 薇 無風獨搖草 零餘子 (중략) 藝菜 益母草 蜀胡爛 雞脚草 雞火蘭 蓼蒿 石薺寧 藍藤根 七仙草 甘家白藥 天竺乾薑 池德勒
	上品之下	藍實 芎藭 藤蕪 黃連 絡石 蒺藜子 黃耆 肉蓯蓉 防風 蒲黃 香蒲 續斷 漏蘆 (중략) 越王餘箒 石蓴 海根 寡婦薦 自經死繩 刺蜜 骨路支 長松 合子草
『鄉藥集成方』	上品之上	黃精 菖蒲 菊花 人參 天門冬 乾地黄 生地黄 朮 菟絲子 牛膝 芫薺子 女萎萎蕤 柴胡 (중략) 龍膽 細辛 石斛 赤箭天麻 菴闍子 葶藶子 卷柏 藍藤根
	上品之下	藍實 芎藭 藤蕪 蒺藜子 黃芪 防風 蒲黃 香蒲 續斷 漏蘆 營實 決明子 茜根 五味子 蘭草 忍冬 蛇床子 地膚子 景天 茵陳蒿 沙參 徐長卿 王不留行
『東醫寶鑑』	卷二 草部	黃精 菖蒲 甘菊花 人參 天門冬 甘草 生地黄 白朮 菟絲子 牛膝 芫薺子 柴胡 麥門冬 獨活 羌活 升麻 車前子 木香 薯蕷 澤瀉 遠志 龍膽 細辛 石斛 巴戟天 赤箭 菴闍子 葶藶子 卷柏 藍藤根 藍實 芎藭 黃連 絡石 白蒺藜 黃芪 肉蓯蓉 防風 蒲黃 續斷 漏蘆 營實 決明子 丹參 茜根 五味子 旋花 蘭草 忍冬 蛇床子 地膚子 景天
	卷二 草部	茵陳蒿 王不留行 白蒿 萊耳 葛根 瓜蒌根 苦參 當歸 麻黃 (이하 생략)

蒺藜子'가 나열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東醫寶鑑』「湯液篇」에서도 '卷栢, 藍藤根, 藍實, 芎藭, 黃連, 絡石, 白蒺藜'의 순서를 취하고 있어 서로 비슷하게 本草를 배열하고 있다. '黃連, 絡石'의 경우에는 『鄉藥集成方』에서 보이지 않지만 『證類本草』 草部 上品之下에서 '藍實, 芎藭, 藤蕪, 黃連, 絡石'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 배열이 국내 자생 약재 630여 종을 기재한 『鄉藥集成方』을 중심으로 하되 『鄉藥集成方』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생 약재 및 수입 약재는 『證類本草』의 순서에 의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東醫寶鑑』「湯液篇」에서는 개별 항목의 本草 배열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의 三品分類 체계를 수정을 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에서는 표 5와 같이 下品之上의 배열이 각각 '白斂, 青箱子, 藟菌, 白及, 大戟'과 '白斂, 青箱子, 白芨, 大戟'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반해 『東醫寶鑑』「湯液篇」에서는 '白斂, 白芨, 大戟, 貫衆, 狼牙, 羊躑躅, 商陸, 青箱子'로 되어 있어 青箱子가 下品之下에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되어 있다. 또한 『證類本草』 草部 下品之下의 배열은 '何首烏, 商陸, 威靈仙, 牽牛子, 菟麻子, 蒴藋, 天南星, 羊蹄, 菰根, 藟蒿, 狼毒, 稀莨, 馬鞭草, 苧根, 白頭翁...'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반해 『東醫寶鑑』「湯液篇」에서는 '商陸, 青箱子, 威靈, 牽牛子, 草麻子, 蒴藋, 天南星, 羊蹄根, 菰根, 藟蒿, 狼毒, 稀莨, 苧根, 馬鞭草, 何首烏, 白頭翁...'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何首烏와 馬鞭草의 위치에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⁸⁾. 『證類本草』 草部에서

표 5 『證類本草』, 『鄉藥集成方』의 草部 下品과 『東醫寶鑑』「湯液篇」卷三 草部の 本草 배열

구분	草部	본초명
『證類本草』	下品之上	附子 烏頭 天雄 側子 半夏 (중략) 白斂 青箱子 藟菌 白及 大戟 澤漆 茵芋 楮魁 (중략) 甲煎 金瘡小草 鬼釵草
	下品之下	何首烏 商陸 威靈仙 牽牛子 菟麻子 蒴藋 天南星 羊蹄 菰根 藟蒿 狼毒 稀莨 馬鞭草 苧根 白頭翁
『鄉藥集成方』	下品之上	附子 烏頭 天雄 側子 半夏 (중략) 白斂 青箱子 白芨 大戟 澤漆 牙子(狼牙草) 羊躑躅 井口邊草 燈花 百草灰 古炊箒
	下品之下	商陸 威靈仙 牽牛子 菟麻子 天南星 羊蹄 藟蒿 稀莨 苧根 白頭翁 (이하 생략)
『東醫寶鑑』	卷三 草部	茵陳蒿 王不留行 白蒿 萊耳 葛根 瓜蒌根 (중략) 常山 甘遂 白斂 白芨 大戟 貫衆 狼牙 羊躑躅 商陸 青箱子 威靈 牽牛子 草麻子 蒴藋 天南星 羊蹄根 菰根 藟蒿 狼毒 稀莨 苧根 馬鞭草 何首烏 白頭翁 芭蕉根 蘆根 馬兜鈴 (이하 생략)

下品之上에 위치해 있던 靑箱子가 下品之下에 해당하는 위치로, 『證類本草』 草部 下品之下에서 가장 앞자리에 위치해있던 何首烏가 『東醫寶鑑』「湯液篇」에서는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은 여타 本草 서적 중의 本草 배열에서도 상용하는 약물을 앞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약물은 뒤에 위치시키고 있음에 근거해 볼 때⁴⁹⁾ 당대 本草의 사용 현황에 따른 중요도에 의거하여 三品の 위치를 변동시킨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東醫寶鑑』「湯液篇」은 각 部 개별 本草의 배열을 앞의 분류 항목 배열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從貴至賤”의 순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湯液篇」 獸部 중에서는 상서롭거나 귀한 동물로 볼 수 있는 용(龍骨)이나 소(牛黃)가 앞부분에 나오고 반대로 천하거나 죽은 동물을 뜻하는 족제비(黃鼠)나 버락 맛아 죽은 짐승의 고기(震肉) 등이 뒤에 위치해 있으며, 蟲部에서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곤충인 벌(白蜜)이나 귀하게 여겨졌던 거북(龜甲)이 앞부분에 나오고 사람에게 해를 주는 좀벌레(衣魚) 이(虱子) 등이 蟲部의 가장 끝에 위치하여 귀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本草가 앞부분에 천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本草가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東醫寶鑑』「湯液篇」 魚部 鯉魚膽

조목에서는 “잉어는 물고기 중에서도 주인공으로 그 모습이 아름답다... 강, 호수, 연못에 살고 곳곳에서 구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食品 중에 가장 맛이 좋다고 말한다⁵⁰⁾”라고 하여 첫 번째 위치에 놓아진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湯液篇」은 외형적으로 上中下 三品分類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東醫寶鑑』「湯液篇」 「湯液序例」 중에서 ‘三品藥性’의 조목을 찾아볼 수 있고, 개별 本草 분류 순서가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의 三品分類 本草 배열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本草의 위치 변경 역시 三品分類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 등으로 보아 내면적으로 그 틀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표 本草’와 ‘부속 本草’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와 관련된 항목은 크게 여러 개의 하위 항목을 소유하되 그 중 대표성을 띄는 本草로서 내세워진 ‘대표 本草’와 하위 항목에 속한 ‘부속 本草’, 그리고 하위 항목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배열되어 있는 ‘독립 本草’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표 6에서와 같이 ‘牛黃’은 ‘대표 本草’, ‘牛肉, 牛角鯁, 頭蹄’ 등은 ‘부속 本草’ 그리고 ‘象牙’는 ‘독립 本草’라고

표 6 『東醫寶鑑』「湯液篇」 獸部의 대표 本草와 부속 本草 예

구분	대표 本草	부속 本草
獸部	牛黃	牛肉 牛角鯁 頭蹄 腦 齒 耳中垢 牛五藏 肚 百葉 膽 鼻 口中涎 口中飴草 骨 特牛莖 尿 糞
	白馬莖	肉 心 肺 肝 赤馬皮 白馬脂 鬐頭膏 頭骨 脛骨 齒 眼 蹄 懸蹄 鬐毛 鬃毛 尿 屎
	豚卵	肉 肪膏 血 鬐膏 大猪頭 腦 骨髓 骨 肝 心 脾 肺 腎 肚 腸 膽 脛 齒 乳汁 舌 四足 懸蹄 猪黃 耳中垢 猪膚 尿
	象牙	-
果部	桃核仁	桃花 桃泉 桃毛 桃葉 桃膠 桃實 急性子 桃符
菜部	蔥白	實 根 葉 花 胡蔥
草部	桑根白皮	桑葉 桑枝 桑椹 桑花 桑柴灰淋汁 桑蠶蟲 柘木
菜部	木耳	桑耳 槐耳 蘑菰 石耳 菌子
	海藻	海藻 海帶 昆布 甘苔 鹿角菜
草部	甘菊花	白菊花 苦薏

48) 『鄉藥集成方』에서는 ‘何首烏’와 ‘馬鞭草’ 두 약물이 모두 생략되어 있어 언급하지 않는다.

49)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188.

50)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395. “鯉魚最爲魚之主, 形既可愛, 又能神變. 脊中鱗從頭數至尾, 皆三十六鱗, 亦其成數也... 生江湖池澤中, 處處有之. 今人食品中以爲上味.”

부를 수 있다. 몇 가지 本草를 대표하는 ‘대표 本草’와 그에 속한 ‘부속 本草’로 이루어진 本草 배열 체계는 표 7에서와 같이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東醫寶鑑』 「湯液篇」에서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 本草 중 ‘부속 本草’의 경우 肝, 心, 脾, 尿 등의 내부 구성물이나 肉, 骨, 齒 등의 외부 구성물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東醫寶鑑』 「內景篇」, 「外形篇」 등에서 사람의 몸을 보았던 것과 유사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식물 本草의 경우에는 實, 根, 葉, 花 등의 구성물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대표 本草’와 ‘부속 本草’의 방식으로 本草를 설명하고 이해한다. 이외에 동일한 ‘대표 本草’ 하의 ‘부속 本草’라 하더라도 『東醫寶鑑』 「湯液篇」과 『證類本草』, 『鄉藥集成方』은 그 종류와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本草의 종류는 당대의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尿, 尿, 糞 등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분류 항목 배열과 마찬가지로 “從貴至賤”의 순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本草의 분류에 따른 재배속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분류나 배열은 『證類本草』, 『鄉藥集成方』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本草의 분류 또는 배열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표 6에서처럼 『東醫寶鑑』 「湯液篇」은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의 ‘菊花’ 조목 내용 중에서 서술된 ‘白菊花, 苦薏’를 ‘부속 本草’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독립 本草’로 되어 있던 ‘海藻, 昆布’ 등을 ‘대표 本草’인 ‘海藻’의 ‘부속 本草’로 배열하여 ‘부속 本草’를 같은 類의 本草로 묶어내고도 있다. 이는 『本草綱目』에서 草部를 山草, 芳草, 濕草, 毒草 등으로 구분한 시각 분류(見分け)⁵¹⁾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東醫寶鑑』이 『本草綱目』의 영향 없이 『證類本草』나 『鄉藥集成方』 등을 근거로 자생적인 類에 따른 本草 분류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東醫寶鑑』 「湯液篇」 草部 本草 중 일부는 『鄉藥集成方』 草部에는 수재되어 있지만 『東醫寶鑑』 「湯液篇」 草部の ‘독립 本草’ 중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며, 반대로 일부 약물은 『東醫寶鑑』 「湯液篇」 草部的 ‘독립 本草’로 수재되어 있으나 『鄉藥集成方』 草部에는 누락되어 있다.

먼저 『鄉藥集成方』 草部에는 수재되어 있지만 『東醫寶鑑』 「湯液篇」 草部 ‘독립 本草’ 중에서 누락된 本草로는 草部에서 土部, 穀部, 蟲部, 菜部 등으로 분류 항목을 바꾼 예와 ‘독립 本草’에서 ‘대표 本草’ 중의 ‘부속 本草’로 위치를 바꾼 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분류 항목을 바꿔 草部에서 다른 部로 분류를 변경하는 바람에 누락된 本草로는 ‘百草灰(土部), 薏苡仁, 古魚網, 古麻鞋底(이상 穀部), 弓弩弦(蟲部), 桔梗, 沙蔘, 乾薑, 生薑, 薺萆, 海藻, 海帶(이상 菜部)’가 있다. 그리고 ‘독립 本草’에서 ‘부속 本草’로 위치를 바꾸면서 누락된 예로는 ‘乾地黃(生地黃), 藤蕪(芎藭), 香蒲(蒲黃), 乾薑(生薑), 葛粉(葛根), 海藻(海藻), 青黛(藍實), 海帶(海藻), 井中苔及萍(地衣), 古魚網(麻子), 澤漆(大戟), 鬼臼(天南星), 古麻鞋底(麻子), 敗蒲席(蒲黃), 屋游(地衣), 雞窠中草(烏雌雞肉)’ 등이 있는데 이들은 『東醫寶鑑』 「湯液篇」 중에서 삭제된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部로 옮기거나 또는 草部 중에서 각각 해당하는 ‘대표 本草’ 중의 ‘부속 本草’로 배열되면서 ‘독립 本草’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鄉藥集成方』이나 『證類本草』에서는 ‘부속 本草’의 위치에 있다가 ‘독립 本草’로 갈라져 나온 예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獨活’과 ‘羌活’의 구분으로 『證類本草』 獨活의 경우 陶隱居, 唐本注, 日華子の 주장에 근거하여 產地, 作用, 생김새 등으로

표 7 『證類本草』,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湯液篇」의 대표 本草와 부속 本草

도서	대분류	소분류	대표 本草	부속 本草
『證類本草』	獸部	中品	白馬莖	眼 懸蹄 白馬蹄 赤馬蹄 齒 髻頭膏 髻毛 心 肺 肉 脯 尿 頭骨 溺
『鄉藥集成方』	獸部	中品	白馬莖	眼 懸蹄 白馬蹄 赤馬蹄 齒 髻頭膏 髻毛 心 肺 齒 脯 尿 頭骨 溺
『東醫寶鑑』 「湯液篇」	獸部	-	白馬莖	肉 心 肺 肝 赤馬皮 白馬脂 髻頭膏 頭骨 脛骨 齒 眼 蹄 懸蹄 髻毛 髻毛 尿 尿

‘獨活’과 ‘羌活’을 구별하려 하고는 있지만 ‘일명 羌活이라고 한다’는 『神農本草經』 원문에 따라 여전히 동일한 類의 本草로 보고(二物同一類) 獨活 안에 羌活을 포함시키고 있다⁵²⁾. 『鄉藥集成方』의 獨活 조목 역시 ‘일명 羌活이라고 한다’라는 문장 외에 별다른 기재가 적혀있지는 않다⁵³⁾. 하지만 『東醫寶鑑』「湯液篇」은 ‘獨活’와 ‘羌活’을 각각 ‘쌍돌함’, ‘강호리’로 구분하고 『醫學入門』과 『湯液本草』의 설명에 근거하여 이 둘을 ‘대표 本草’와 ‘부속 本草’ 관계가 아닌 ‘독립 本草’로서 설명하고 있다⁵⁴⁾. 이는 비록 『東醫寶鑑』「湯液篇」 草部の 本草 선택이 『證類本草』과 『鄉藥集成方』 草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 책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의견 도입과 함께 수정을 통한 독창적인 편제 구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III. 結論

『東醫寶鑑』「湯液篇」은 本草 분류 방식에 있어 『證類本草』, 『鄉藥集成方』 등과 달리 水部, 土部, 金部の 분류 항목을 추가하고, 蟲魚部和 玉石部の 항목을 魚部和 蟲部, 玉部和 石部の 항목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본초 분류 항목의 배열을 통해 기존 『證類本草』와 『鄉藥集成方』 등과의 차별성을 띄고 있다. 특히 내용적으로 三品分類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三品分類를 폐기한 점, ‘대표 本草’와 ‘부속 本草’의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새롭게 本草 분류를 실시하거나 새로운 분류 항목을 적용한 점 등은 『東醫寶鑑』「湯液篇」이 『證類本草』과 『鄉藥集成方』를 전범으로 삼아 편찬되었으나 두 책의 체계를 답습하지 않고 독창적인 의견의 개진과 함께 자신만의 本草 편제 구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東醫寶鑑』「湯液篇」은 『東醫寶鑑』의 일부 구성 편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湯液篇」 자체만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뛰어난 독창성과 정밀성을 지닌 本草 전문 서적으로 조선 후기 본초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대 조선에서도 조선 약물, 鄉藥에 대한 연구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연구 수준 역시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 준다. 특히 『東醫寶鑑』「湯液篇」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독창적인 본초 분류 방식은 이를 ‘明醫學과 鄉藥方의 융합’이라기 보다는 ‘明醫學의 토착화와 鄉藥을 통한 자주적 해석’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IV. 참고문헌

<논문>

1. 이상인. 동의보감을 본초학 영역에서 살펴본 특징과 끼친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1992. 7(1). 1992. pp.21-26.
2. 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1982. 4(1). p.117. pp.113-117.
3. 노정은. 東醫寶鑑 湯液篇에 수록된 식물류 本草의 문헌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58.

<단행본>

1. 岡西爲人. 本草概説. 大阪. 創元社. 1983. p.217.
2.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736.
3. 김신근 편. 유효통, 노중례, 박운덕 저. 한국의학대계 7 鄉藥集成方(영인본) 5.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06.
4.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78, 279, 286, 303, 312, 315, 320, 335, 366, 395, 474, 517, 592.
5.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p.228-249.
6. 김호철.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4. pp.16-17.
7. 劉衡如 교정. 李時珍 저.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7.

51) 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33.

52) 尙志鈞 집교. 唐慎微 찬. 證類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64. “一名 羌活.”

53) 김신근 편. 유효통, 노중례, 박운덕 저. 한국의학대계 7 鄉藥集成方(영인본) 5.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06. “一名 羌活.”

54)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474.

8. 山田慶兒. 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 朝日新聞社. 1997. p.33, 40, 50, 71, 73.
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195, 359. pp.356-357.
10.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p.341-342.
11. 尙志鈞 집교. 唐愼微 찬. 證類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64.
12.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p.192-194.
13.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 들녘. 1999. p.847, 863.
14.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p.46-53.
15. 王綸. 歷代本草精華叢書 3 本草集要.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2. p.1, 2.
16. 이덕봉. 한국문화사대계 5 한국생물학사.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pp.386-395.
17. 이주행, 조원식, 정갑임, 김우형, 박현주 옮김. 黎靖德 편. 朱子語類. 서울. 소나무. 2001. p.223. pp.197-198.
18.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8. p.188.